

‘사랑’을 바탕으로 한 보건복지행정을.....



金慕妍

보건복지부 장관

여 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오늘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선진복지사회의 기틀을 다지는 보건복지행정의 책임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영광이지만 한편으론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어깨가 무겁습니다.

보 건복지부 직원여러분 ! 본인은 오늘 이 자리가 기쁨을 나누는 자리이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IMF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다가오는 21세기

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로 거듭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인내와 단결이 어느때 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함께 잘 사는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현실과 비전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반성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보건복지행정을 펴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수여하실 때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보건복지행정에 임해 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도 보건복지행정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 그동안 그렇게 해 오셨지만 이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는 우리의 사회속에서 더욱 더 여러분이 보건복지행정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과 집행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은 우리의 경제수준에 걸맞는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의 복지제도가 기본 틀은 갖추었으나 그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제는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 늘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영역과 기대수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국민에게 다가서는 새로운 복지 이미지를 창출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기 위주의 일과성 시책이나 공급자 위주의 시책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 욕구에 부합되는 구체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보건복지시책이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통합과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여야 하며, 대통령께서도 소외계층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체

계 강화와 의료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새정부의 업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좌우된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복지행정은 온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피부로 느끼는 부분인 만큼 국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정부에서 추구하는 민주화를 민생분야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화합을 바탕으로 국민 편익을 보다 더 먼저 생각하면서 보건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건복지부가 있기까지 여러분이 그동안 기울여 온 많은 노고와 공적에 깊은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열의와 노력이 좋은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에서 끌기도 하고 뒤에서 밀기도 하는 일이 바로 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복지부 직원 여러분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간다는 긍지와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